조선 후기 오대산 유람과 상원사

李璟珣(대한민국역사박물관)

目　次

Ⅰ. 머리말
Ⅱ. 조선 후기 오대산 유람과 불교
Ⅲ. 유산기에 나타난 상원사
Ⅳ. 맺음말

----------요약----------

오대산 상원사는 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사찰로서 그 동안 많은 관련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상원사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글은 조선 후기 오대산 상원사의 모습과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오대산 유산기록을 검토하였다. 조선 후기 오대산 유람이 증가했는데 그 배경으로는 금강산 유람의 유행과 유람 권역의 확대, 오대산사고의 설립과 운영, 김창흡과 같은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의 유람 등을 들 수 있다. 유산기에는 오대산의 많은 사찰과 승려들이 기록되어 조선 후기에도 오대산 불교가 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17세기 중후반 환적 의천에 의해 몇몇 중대 암자들이 중창되었는데 유산기는 이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을 전했다.

조선 후기 유산기에는 상원사 가람의 법식과 정교한 건축에 대한 유람자들의 감탄이 기록되었다. 유람자들은 세조에 의해 중창된 상원사의 사적을 회고하면서도 17세기 이후 상원사의 절이 비고 승려가 몇 명 남지 않은 상황을 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18세기 이후 상원사 전각 수가 줄고 가람배치도 변화를 겪었음이 드러난다.

한편, 유람자들은 상원사 왼쪽에 중창된 진여원과 함께 조성된 문수상, 36변상도를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나옹의 전설을 지닌 계수나무, 나옹의 얼굴을 닮은 나한존상 등을 언급하며 상원사에 나옹의 전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증언하였다. 조선 후기 오대산 사찰들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 속에서 상원사는 오대산 신앙의 상징적 장소로서 위상과 전승을 보존하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단어] 상원사, 오대산, 유산기, 오대산 유산기, 오대산 불교, 조선 후기 오대산

Ⅰ. 머리말

五臺山 上院寺는 한국의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대산 신앙과 역사적 사건, 고승의 행적이 지속되어온 사찰이기 때문이다. 상원사는 다양한 문헌사료와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 중에서 조선시대 상원사 관련 연구는 조선 전기에 집중되었다. 조선의 7대 국왕으로 호불 군주였던 世祖에 의해 중창되고 원당 지정과 보호 조치가 이어졌으며 조선 전기 불교예술을 대표하는 목조문수동자상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 상원사의 역사와 위상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17세기에 제작된 상원사 문수전 목조문수보살상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고[1] 상원사가 조선 후기

까지 왕실의 원당으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2], 조선 후기 오대산 유람기록에 대한 해제와 번역이 출간되었다.[3] 이렇게 상원사와 관련된 자료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조선 후기 상원사의 양태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 글에서는 산문으로 쓰인 오대산 유산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조선 후기 상원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사건이나 장소를 파악하는 자료로서 유산기와 같은 여행기록은 외지에서 온 여행자의 피상적 관찰의 결과물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여행기록은 장소와 인물에 대한 시간성과 현장성을 담지한 사료로서 의미가 있다. 공적인 사료가 보여주지 못하는 생생한 목격담이나 실제로 오간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 작성된 오대산 유람기록은 여러 편 남아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산수 유람의 유행을 반영한다. 조선 후기 유람기록에서 상원사는 월정사와 더불어 오대산 유람에서 반드시 실견할 장소로 거의 모든 유산기에 수록되었다. 조선 후기 유람자들은 상원사를 오대산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여겼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오대산 유람기록의 종류와 유산기에 나타난 오대산 불교의 면모를 살피고 조선 후기 유람자들의 눈에 비춰진 상원사의 모습과 그 변화 양상을 포착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유람기록을 통해 장구한 오대산 불교사에서 조선 후기 상원사의 위상을 검토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Ⅱ. 조선 후기 오대산 유람과 불교

1. 조선 후기 오대산 유산기

금강산과 오대산은 한반도에서 산악신앙과 보살주처신앙을 대표하는 성지였다. 13세기 이후 보살주처사상의 유행에 따라 법기보살이 상주하는 금강산과 문수보살이 주처하는 오대산에 대한 신앙이 성행하였다. 이에 따라 금강산과 오대산을 실견하고자하는 여행이 이루어졌고 관련 시문이 출현하였다. 당시 오대산 여행은 불교 성지에 대한 순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4]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대부의 문화로서 산수 유람 문화가 정착되었고 특히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17세기 후반부터 유람을 통해 발견한 승경을 글과 그림 등으로 담아낸 紀遊文藝가 문단의 주류로 떠올랐다.[5] 이 시기에 오대산에 대한 유람기록도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오대산 유산기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표 1> 조선 후기 오대산 유산 기록

유람연도	유람자	유산기	출처
1626	申楫(1580-1639)	「關東錄」	『河陰集』

1) 2008년 상원사 문수전 목조문수보살상에 대한 복장 조사가 실시되어 9점의 발원문류, 복장 전적, 다라니, 후령통 등이 보고되었다. 이 복장유물은 2014년 전시와 자료집 발간을 통해 공개되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華嚴, 연꽃가지를 들다』, 2014

2) 탁효정, 「조선시대 오대산의 왕실불교와 원당의 운영」, 『불교문예연구』20, 2022, p.215.

3) 권혁진·허남욱, 『오대산의 인문학』, 도서출판 산책, 2019. 이 책의 2장에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오대산 유람기의 해제와 번역을 실었다.

4) 박광연, 「한국 오대산신앙 관련 자료의 재검토」, 『사학연구』118, 2015, pp.219-220.

5) 기유문예란 유기, 유록, 유람일기, 유람시, 기유도 등 자연 산수나 인문경관을 유람하여 견문한 사실이나 감회를 담아낸 모든 예술 행위를 말한다. 이종호, 「17~18세기 기유문예의 두 양상-농연그룹의 문예활동을 중심으로-」『漢文學論集』30, 2010, p.107.

6) 권혁진·허남욱이 발굴한 오대산 유산기에 조선말 승려인 혼원세환의 「금강록」을 추가한 목록이다. 권혁진·허남욱, 위의 책, p.164; 윤찬호(역), 「金剛錄」『혼원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2020 참조

1631	申翊聖(1588-1644)	「遊金剛小記」	『樂全堂集』
1664	尹宣擧(1610-1669)	「巴東紀行」	『魯西遺稿』
1676	宋光淵(1638-1695)	「五臺山記」	『泛虛亭集』
1687	丁時翰(1625-1707)	「山中日記」	『愚潭集』
1708	趙德鄰(1658-1737)	「關東錄」	『玉川文集』
1718	金昌翕(1653-1722)	「五臺山記」	『三淵集』
1723	金履萬(1683-1758)	「山史」	『鶴皐集』
1727	姜再恒(1689-1756)	「五臺山記」	『立齋遺稿』
1732	權燮(1671-1759)	「遊行錄」	『玉所稿』
1740	蔡之洪(1683-1741)	「東征記」	『鳳巖集』
1742	鄭基安(1695-1767)	「遊楓岳錄」	『晩慕遺稿』
1883	世煥(1853-1889)	「金剛錄」	『混元集』
1898	許薰(1836-1907)	「東遊錄」	『舫山先生文集』

유산기가 쓰인 시기와 편수는 17세기 5편, 18세기 7편, 19세기 2편이다. 18세기 전반의 기록이 가장 많다. 유산기 작자의 대부분은 사대부층이고 19세기 후반 혼원 세환만이 승려다.[7] 오대산 유산기록의 작자 중에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유람가들이 포함되었다. 정시한[8], 김창흡[9], 권섭[10]이 그들이다. 유람가로 이름 높았던 인물들이 오대산 유람에 나선 것은 조선 후기 산수 유람지로서 오대산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에 오대산 유람이 이루어졌던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조선 후기 산수 유람이 대유행하는 가운데 유람이 집중된 곳은 단연 금강산이었다.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오대산에 대한 유람이 이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송광연, 김창흡, 강재항이 각각 기록한 「오대산기」를 제외하고, 위의 <표 1>에서 열거된 유산기들은 그 제목에서 금강산을 주목적지로 한 유람 기록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오대산 유람은 금강산 유람 전후의 경로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통적 유람지였던 금강산-관동지역에 더하여 17세기 이후 오대산 지역까지 유람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가 1788년경 완성된 金弘道(1745-1806)의 『金剛四君帖』이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원화가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아 금강산 및 관동지역을 직접 유람하며 60폭의 실경 산수화를 그렸는데 여기에는 내외 금강산의 명소들, 관동 팔경 뿐만 아니라 오대산이 포함되었다. 오대산의 월정사, 오대산사고, 상원사, 중대의 그림이 포함된 이 화첩은 금강산 일대의 여행을 뜻하는 '東遊'에 오대산이 포함된 당시의 유람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오대산에 대한 유람이 증가한 계기로 五臺山史庫의 건립과 운영을 들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등 왕실의 주요 기록과 서책을 보관하는 外史庫로서 오대산에 사고가 1606년 건립되고 주기적으로 서책 포쇄를 위해[11] 중앙에서 관리들이 파견되었다. 이로 인해 사대부 사회에서 오대산에 대한

---

7) 혼원 세환(1853-1889)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16세에 팔공산으로 출가했다. 백련사, 청암사 등지에서 강석을 열어 명성을 얻었다. 팔공산에서 후학을 지도하던 중 1889년 37세의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입적하였다. 문집인 『혼원집』은 1912년에 발간되었다. 금강산·오대산 유람기록인 「금강록」은 이 문집에 실려 있다. 「행장」, 『혼원집』 권2; 윤찬호, 「혼원집 해제」, 위의 책, 2020. pp.9-17.

8) 정시한(1625-1707)은 출사를 하지 않고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면서 지리산, 속리산, 금강산, 오대산, 팔공산, 태백산 등 많은 산들을 유람하였다. 그의 유람기록은 「산중일기」로 남았다. 이 유람기록은 600일에 가깝다.

9) 김창협(1651-1708), 김창흡(1653-1722) 형제는 김수항의 아들로서 기사환국으로 부친이 사사되자 벼슬을 포기하고 산수 유람에 적극 나섰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전국의 산을 유람하고 시와 기문을 남겼고 당대 최고의 문예적 성과로서 평가받았다.

10) 권섭(1671-1759)은 노론과 소론에 걸친 명문가 출신으로 김창협, 김창흡의 문도였다. 권섭은 과거에 번번이 실패했고, 30대 이후 8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행과 창작에 힘을 쏟았다. 그는 말년까지 전국의 유람지를 주제로 한 30여 편의 여행기록을 남겼다.

11) 曝曬는 조선 후기 사고 관리에서 핵심적인 작업이었다. 포쇄는 전통적인 서적 관리방법으로 그늘에서 바람

관심이 환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오대산 유람기록에서 오대산사고와 사고의 실질적 관리사찰인 靈鑑寺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오대산사고의 건립은 오대산이라는 이름과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포쇄관으로 파견되는 관리는 오대산, 금강산 유람의 기회를 얻기도 했다.[12)]

셋째,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 문원을 주도했던 김창흡의 오대산 유산기는 많은 이들에게 회람되었고 이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점은 김창흡의 「오대산기」를 전범으로 한 1727년 강재항의 오대산 유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강산을 경유해 오대산을 유람한 이들은 금강산과 비교를 전제로 오대산에 대해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창흡은 오대산의 미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오대산은 생김새가 중후하여 유덕한 군자와 같고, 조금도 경망스럽거나 뾰족하고 날카로운 데가 없으니 이것이 이 산의 한 가지 아름다움이다. 깊은 숲과 높다란 나무는 크기가 한 아름씩이나 되는데, 구름을 덮고 해를 가려 모든 봉우리를 감추고 있어, 淸寒子(金時習)가 말한 바 '풀과 나무가 무성하고 빽빽하여 俗子들이 드물게 오는 것은 오대산이 제일'이라고 하였다. 암자들이 깊고 고요한 곳에 있어 어디서나 불도를 닦을 수 있으니, 이것이 한 가지 아름다운 점이요, 샘물 맛이 뛰어나게 좋아서 다른 여러 산에서는 보기가 드무니 이것이 이 산의 한 가지 아름다운 점이다.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으니 금강산의 다음이라고 이름 지을 만하다. 그러나 그 장점만을 들어 뾰족한 봉우리와 웅장한 폭포와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만일, 내가 여러 산을 두루 본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 산으로 우두머리를 삼겠으니 더욱 기이하고 다행한 일이다. 산 밖에서 비를 만나 신을 고쳐 신다가 문득 날이 개니 이것이 한 가지 다행한 일이요, 단풍잎의 연한 빛이 알맞아서 볼만하니 이것이 한 가지 다행한 일이요, 외로운 흥을 달랠 길이 없더니 네 사람과 함께 마음껏 놀게 되니 이것이 한 가지 다행한 일이다. 이 산의 아름다움에 나의 아름다움을 합치고 보니 기이하고도 기이하여 이 글을 쓴다.[13)]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 기유 문예의 주요 경향 중 하나는 산수에 대한 품평이었다. 이때 산수 품평의 기준은 금강산으로, 금강산의 비경은 다른 지역의 산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다. 김창흡은 오대산의 장점을 들며 금강산에 못지않은 산수풍광과 명승으로 오대산을 평가했다. 이러한 오대산 산수에 대한 평가는 김창흡의 영향력에 힘입어 오대산의 명성을 확산시키고 실제 유람에 큰 파급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오대산 유람의 경로는 유람자에 따라 금강연, 월정사, 사고, 중대, 서대, 북대, 남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지만[14)] 핵심은 월정사-史庫-상원사-적멸보궁으로 이어지는 코스였다. 오대산 유람자들은 월정사와 중대를 오대산의 중심으로 여겼고 주요 유람지로 삼았다.

유산기를 남긴 대부분의 인물들은 오대산의 오대라는 지리적 형세와 각 대의 샘물에 대해[15)]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오대산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선왕실과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했다. 15세기 초 태조의 원찰로 지정된 獅子庵과 1465년 세조에 의해 중창된 상원사의 사적, 국가의 중요 문서와 서책을 보관하는 오대산사고에 대해 각별히 기술하였다. 유산기를 쓴 유학자들이 인지한 오대산 역사는 조선 왕조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三國遺事』나 『五臺山事蹟』에 등장하는 오대산의

에 책을 말려서 습기와 충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외사고의 포쇄는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 강문식, 「조선후기 五臺山史庫의 운영」, 『장서각』27, 2012, pp.212-214

12) 포쇄관으로 파견되어 오대산과 금강산에 대한 유람의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蔡濟恭도 30세이던 1749년 오대산 사고에 포쇄관으로 다녀오는 길에 오대산, 금강산을 유람했다. 「走草長歌贈潘庭筠李鼎元爲別」, 『樊巖集』 권13

13) 김창흡, 「五臺山記」, 『三淵集』 권24; 권혁진·허남욱, 앞의 책, 2019, pp.227-228.

14) 각 유산기에 나타난 유람코스에 대해서는 권혁진·허남욱, 위의 책, 2019, pp.154-157 참조

15) 중대 사자암의 옥계수, 서대 수정암의 우통수, 동대 관음암의 청계수, 북대 미륵암의 감로수, 남대 지장암의 총명수를 말한다.

고대 역사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적멸보궁에 봉안된 진신 사리의 유래나 상원사의 고대 전승은 승려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지만, 신뢰할 수 없는 황탄한 설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비해 1883년 오대산을 유람한 승려 혼원 세환의 기록은 유학자의 시각과 전혀 다른 유람 내용을 보여준다. 세환은 상원사와 적멸보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만약 세조 대왕의 어진 마음과 높은 덕성이 아니라면, 어찌 저와 같이 감화하여 충성을 바칠 수 있었겠는가. 옛날에 코끼리가 밭을 갈고 새가 김을 맨 것도 또한 감화를 받아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일 것이다. 냇물 위에 석대가 있는데, 세조대왕이 목욕하고 옷을 벗어 놓았던 곳이다. 그리고 중대는 바로 문수보살이 서른여섯 번의 변화를 한 도량이다.
>
> … 이윽고 적멸궁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은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곳이다. 주맥(主脉)은 바로 오대산 제일의 산줄기로, 낮고 평평하다가도 다시 높았으며, 여러 산줄기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멀고 가까운 여러 산들이 모두 그곳을 향하고 있었으니, 진실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승지이다. 세존의 진신을 모신 탑묘에서 머리를 조아려 수없이 절을 하고 나서 그 주위를 한참 동안 이리저리 거닐었다.[16]

세환은 조선시대 세조의 오대산 행차 뿐 아니라 상원사와 적멸보궁의 유래와 사적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신앙 대상으로서 유적을 대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자들이 산수품평의 대상이나 시문을 짓기 위한 무대로서 오대산을 평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승려의 시각이 반영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2. 유산기에 나타난 오대산 사찰과 승려

오대산은 고대로부터 불교의 성지였다.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온 신라 慈藏이 석존 사리 일부를 중대 적멸보궁에 봉안한 이래 문수신앙이 자리하였으며 이후 신라왕자 寶川과 孝明에 의해 五萬眞身 신앙으로 확대되었다고 알려져 왔다.[17] 뿐만 아니라 여말선초 懶翁 惠勤(1320-1376)과 나옹문도들의 활약, 조선 전기 왕실 원당 설치와 잇따른 국왕의 친림, 조선 중기 四溟惟政(1544-1610)의 월정사 중건과 오대산사고의 설립 등 오대산은 조선시대 불교사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18]

1530년에 간행된『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오대산에 4개 사찰 즉 상원사, 사자암, 금옹사, 월정사가 수록되었고[19] 1760년대 편찬된『輿地圖書』에는 상원사 사자암, 관음암, 금옹사, 월정사, 수정암 등 6개 사암이 기록되었다.[20] 그런데 조선 후기 유산기에는 이러한 관찬 지리지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훨씬 많은 수의 오대산 사암이 기록되었다.

<표 2> 조선 후기 유산기에 나타난 오대산 사찰

유람연도	유람자	사찰명	사암수
1626	신즙	월정사, 상원사	2
1631	신익성	월정사, 상원사, 동대 관음암	3
1664	윤선거	월정사, 영감사, 상원사, 사자암, 금몽암, 적멸보궁	6
1676	송광연	월정사, 신성굴, 화엄암, 진여원, 환적당, 상원사, 적멸보궁,	18

16) 혼원세환,「金剛錄」,『混元集』; 윤찬호, 위의 책, 2020, pp.92-93.
17)『三國遺事』권3 塔像「臺山五萬眞身」,「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臺山月精寺五類聖衆」; 염중섭,「新羅 五臺山의 文殊信仰과 五萬眞身신앙 검토」,『한국불교학』92, 2019, pp.226-243.
18) 황인규,「여말선초 나옹문도의 오대산 중흥불사」,『불교연구』36, 2012 참조
19)「강원도 강릉대도호부」『신증동국여지승람』권44
20)「강원도 강릉」『여지도서』권 상(上)

		고운암, 상두암, 자시암, 동관음암, 종봉암, 서수정암, 영감사, 남관음암, 지장암, 보현암, 금강암	
1687	정시한	월정사, 금강대암, 영감사, 신성암, 적조암, 상두암, 함허당, 북대암, 상두암, 자씨암, 적멸보궁, 금몽암, 사자암, 상원사, 진여원, 보질도암, 동관음암, 육수암	18
1708	조덕린	월정사, 사자암, 화엄암, 상원사	4
1718	김창흡	월정사, 영감사, 신성굴, 상원사, (진여각), 사자암, 금몽암, 사리각, 북암, 수정암	10
1723	김이만	월정사, 작은 암자(상원사?)	2
1727	강재항	월정사, 신성굴, 상원사, 사자암, 금몽암, 사리각, 적멸각, 진여각	8
1732	권섭	월정사, 동대 관음암, 영감암, 화암암, 진여원, 상원사, 사자암, 금몽암, 적멸보궁, [안수암, 방중암, 보리암, 종봉암, 보제암, 선장암(남대), 육수암(동대), 수정암(서대), 고운암, 상두암, 함허당, 자씨암]	21
1740	채지홍	월정사, 상원사, 사자암, 금몽암, 적멸암	5
1742	정기안	월정사, 사자암, 적멸보궁, 금몽암, 상원사	5
1883	세환	월정사, 상원암, 묘옥(기도처), 적멸궁	4
1898	허훈	월정사, 영감사, 내원(상원사?), 적멸궁	4

위의 <표2>를 통해 조선 후기 오대산의 사찰 수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유람자들이 오대산 전역의 사찰을 방문하고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 오대산 유람의 출발지에 해당하는 월정사와 사고의 수호사찰인 영감사, 그리고 상원사와 중대 사찰들이 필수 코스였고, 나머지 북대, 서대, 남대에 대해서는 선택적 유람이 이루어졌다.

이들 중 다수의 사찰을 언급한 것은 송광연, 정시한, 권섭이었다. 가장 많은 사찰 수를 기록한 권섭은 월정사에서 상원사를 거쳐 적멸보궁까지의 주요 사찰들을 방문했고 이후 12개 사찰들은 실견한 것은 아니었다. 방문하지 않은 12개 사찰의 이름은 동행한 승통 道覺이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권섭의 기록을 기준으로 본다면 18세기 전반에 21개 이상의 사암이 오대산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산기에는 오대산 사암의 중창과 폐지와 관련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676년 송광연이 '금몽암 아래는 사자암인데 승려가 없어 허물어지려 하니 애석하고도 애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당시 사자암이 폐찰의 위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유산기에 언급된 상원사 주변 사찰이다.

<표 3> 조선 후기 유산기에 언급된 상원사 주변 암자

유람연도	유람자	상원사	사자암	금몽암	진여원(각)	신성암(굴)	화엄암
1626	신즙						
1631	신익성						
1664	윤선거						
1676	송광연		황폐				
1687	정시한					황폐	보질도암
1708	조덕린						
1718	김창흡					황폐	
1723	김이만	?					
1727	강재항						
1732	권섭						
1740	채지홍						
1742	정기안						

1883	세환						
1898	허훈	내원(?)					

주목되는 것은 17세기 중후반 幻寂 義天(1603-1690)에 의해 상원사 주변에 진여원, 환적당, 신성굴 등이 중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송광연과 정시한의 유산기 속에도 기술되었다. 의천은 1660년 진여원을 중건하고 환적당을 지었으며 1672년에 신성암을 창건하였다.[21] 의천은 17세기 중반에 오대산에 전승된 사적에 의하여 오대산 신앙의 시원격인 진여원과 신성굴을 중창한 것이다. 진여원은 상원사의 시초에 해당하는 수행처였고 신성굴은 신라 보천왕자가 수행했다고 전해지는 암자였다.[22]

> 그(적멸보궁) 아래 기가 모인 곳이 상원사이고 상원사 아래가 진여원, 환적당, 화엄암이며 … 의천의 문도들이 번성하여 뜻한 과업을 쉬이 성취하였으며 산 속에 암자를 여럿 세운 것이 많은데 진여원과 신성굴이 가장 이름난 암자이다. 신성굴 아래에 또한 오래된 초가집터가 있는데 신라의 왕자가 정신을 수양하고 도를 닦던 곳이다. 의천은 자신의 문도에게 이곳에 암자를 하나 짓게 하였다.[23]

> … 밀선과 함께 진여원으로 내려갔다. 이곳은 중창한 지 얼마 안되어 금벽휘황하다. 다시 밑에 있는 보질도암(寶叱徒庵)에 내려갔는데 이 곳 역시 볼 만한 곳이다. 상원사, 진여원, 보질도암 모두 중대에 있다.[24]

1676년 송광연은 상원사 아래 진여원, 환적당, 화엄암이 있으며 의천과 문도들이 진여원과 신성굴을 세웠다고 하였다. 진여원이 지어진지 27년 만에 방문한 정시한은 진여원이 '중창한지 얼마 안 되어 금벽휘황'하다고 하였다. 그 아래 보질도암을 언급했는데 다른 유산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암자 이름이다. 보질도는 신라 왕자 보천을 의미하는데 『오대산사적』에 보질도방을 화엄사로 개명하였다는 기록이 있어[25] 화엄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정시한은 신성암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남겼다. 신성암은 의천이 중창했는데 진흙으로 된 벽이 모두 깨지고 비어 있은 지 5,6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성암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虎患을 당하여 비게 된 사정이 있었다. 이후 18세기 전반 강재항의 유산기에는 신성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지명 정보로만 등장한다. 의천은 신성암을 1672년에 중창하고 그곳에서 10년간 수행 후 오대산을 떠나게 되는데[26] 정시한의 기록은 의천이 떠나자마자 신성굴이 호환이후 사실상 폐사되었음을 가리킨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유산기에 언급된 사찰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 20세기 초 작성된 <월정사본말사법>에 의하면 월정사의 산내암자가 관음암, 영감사, 상원사, 사자암, 염불암, 상왕암 6개만이 기록되었다.[27] <월정사본말사법>의 내용을 19세기 말의 오대산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 18세기 전반까지 21개 이상으로 추정되던 오대산의 사찰 수가 19세기에 이르러 급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1) 楓溪 明察, 「幻寂堂大師行狀」, 『楓溪集』下; 義天, 「海東朝鮮國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內眞如院三重創發願文」, 1660,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22) 『三國遺事』 권3 塔像 「臺山五萬眞身」
23) 송광연, 「五臺山記」, 『泛虛亭集』 권7; 권혁진·허남욱, 앞의 책, 2019, p.182.
24) 정시한, 「山中日記」 1687년 10월 11일; 권혁진·허남욱, 위의 책, 2019, p.197.
25) 閔漬, 「五臺山聖跡幷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 『五臺山事蹟』
26) 楓溪 明察, 위의 글, 『楓溪集』下
27) 1912년에 제정 반포된 월정사본말사법에는 소속본말사가 기재되어있다. 이중 월정사 본사의 전각 명칭은 10개가 열거되었다. 적멸보궁, 칠불보전, 영산전, 광응전, 진영각, 용선전, 연향각, 선당, 백련당, 장사보각이다. 산내암자는 관음암, 영감사, 상원사, 사자암, 염불암, 상왕암이 기록되었다. <제2장 寺格> '제8조' 『월정사본말사법』(1912) 여기에서 적멸보궁이 월정사 본사에 소속된 전각으로 표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오대산에는 역대로 많은 고승들이 주석하여 수행하였다. 고려 말 나옹이 주석하며 큰 법화를 미쳤고 조선 초에는 涵虛得通이 머물렀다. 이어 세조대 信眉, 學悅 등이 오대산 불교의 중흥에 크게 활약하였다. 조선 중기에도 了義, 一學, 映虛海日, 霽月敬軒, 碧巖覺性도 오대산을 거쳐 갔다. 사명당 유정은 남대 종봉암, 월정사, 영감암에 주석하면서 1589년 월정사를 중건하고 1606년 오대산사고 건립하는 등 큰 자취를 남겼다.[28)]

유산기에는 많은 수의 오대산 승려들이 등장한다. 다음은 각 유람자들이 유람 중 만나서 법명을 기록한 이들과 籃輿僧을 언급된 경우이다.

<표 4> 조선 후기 유산기에 언급된 오대산 승려

유람연도	유람자	승려명	남여승
1626	신즙	지혜(월정사),	ㅇ
1631	신익성	성정(동대 관음암)	
1664	윤선거	각현, 덕견(성정의 제자)(월정사), 의규(금몽암), 명안, 극민, 성름(상원사)	ㅇ
1676	송광연	경령, 운제, 의천(신성굴), 주계(진여원), 의규, 삼인, 성허(상원사), 자언(금몽암), 성영(북대 고운암), 육화(상두암, 자시암), 종택(동관음암), 도영(종봉암), 청오(서수정암)	ㅇ
1687	정시한	처암, 도안, 희원, 해천, 성인, 도희, 혜찰, 해상(월정사), 설행(영감사), 해신, 의규(적조암), 밀선(함허당), 신영(상원사), 도무(화엄암), 지영, 법기(자운암), 지원, 자징, 지환(동관음암)	
1708	조덕린		
1718	김창흡	축경(북암)	ㅇ
1723	김이만		
1727	강재항	승익(강릉)	ㅇ
1732	권섭	도각(승통)	
1740	채지홍		ㅇ
1742	정기안		
1883	세환		
1898	허훈		

이들 중에는 이름 높은 수행승, 월정사 주지였던 승통도 있었고, 유람객을 안내하고 가마를 태워 운행했던 남여승도 있었다. 1631년 오대산을 유람한 신익성은 동대 관음암에서 수행승 性淨을 만난 기록을 남겼다. 당시 성정은 예순 여덟 살로 암자에서 나오지 않고 절식을 하며 수행한 지 7년이 되었다고 했다. 신익성은 당대의 많은 고승들을 알고 있었지만 성정만큼 知行이 모두 높은 이는 없었다고 하면서 '그가 入定하면 깨어나지 않는 것이 오래된 우물과 같았고, 외물과 접촉하면 정신이 활발하고 예리한 말이 빼어나 비록 크게 의심스러운 일이라도 한마디 말로 해결하였다. 그의 뜻과 기개를 보니 한 시대를 능가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평하였다. 이어 신익성은 불가의 공안법을 의심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성정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 성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선비께서는 도리를 아십니까? 불가의 말을 의심하시니, 유가를 예로 들어 증명하겠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단지 제자와의 문답으로 설파하였을 뿐인데, 宋나라의 유자들이 비로소 主敬說을 내놓았습니다. 유가의 '주경'은 바로 불가의 공안의 뜻입니다. 성인의 시대가 멀어지니 그 말씀도 없어져 큰 도가 황량해지고 인욕이 천리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유가나 불가가 모두 마땅히 마음에서 구해야 하니, 마음을 구하는 요령은 욕심을 없애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르침으로 삼아 혹은 '敬'으로써 하고 혹은 '無'로써 하지만 인욕을 없애고 뜻을 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욕이 깨

28) 황인규, 「조선중기 월정사와 상원사·적멸보궁」, 『역사와 교육』14, 2012, pp.151-152.

끗이 사라지면 천리는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였다.[29]

이렇게 성정은 '敬'이나 '無'라고 하는 것은 인욕을 없애고 천리를 드러내기 위한 가르침으로 유불이 마찬가지라고 명징하게 설명하였다. 15세기 오대산에는 유불의 회통을 주장하며 「顯正論」을 저술한 涵虛 得通(1376-1433)이 주석한 바 있었다. 신익성의 유산기는 17세기 오대산의 고승 성정과 나눈 문답을 생생히 전하면서 유불이 근원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함허의 견해가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송광연은 17세기 후반에 오대산에 주석한 또 다른 고승인 환적 의천과 마주쳤다.

> 시내를 따라 10여리 올라가서 신성굴에 도착했다. 한 무더기 바위가 시냇가에 우뚝 솟았고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다. 위에 정사 한 칸을 지어놓고 수좌승 의천이 머물면서 자신의 호를 환적당이라 하였다. 의천은 가만히 앉아 도를 닦아 정신과 풍채가 의연하고 나이가 일흔 넷인데도 얼굴에 젊은이의 광채가 가득하다. 젊을 때부터 솔잎을 항시 복용하여 기력을 얻은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 의천이 스스로 말하길 속가가 선산에 있으며 이백종 등과 서로 친한 사이라고 한다, 여러 승려들이 말하길, 본래는 선산의 大族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지조와 행실이 여느 승려들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한다.[30]

환적 의천은 淸虛休靜의 제자 鞭羊彦機의 법맥을 이은 고승이었다. 그는 선산의 명문가 출신으로, 본인의 법호를 딴 幻寂堂이란 이름으로 지은 절이 전국에 네 곳이나 될 정도로 각지 수행처를 돌아다니며 수행을 이어갔다. 의천은 1660년 오대산에 들어가 진여원을 중건하고 환적암을 수리했으며 1661년 진여원 안에 문수보살상을 조성하여 3년 동안 머물렀다. 이후 봉암사 등에서 수행하다가 1663년 오대산 보제암에서 동안거를 하였고 1672년 봄에 다시 오대산에 들어와 신성암을 창건하고 10년을 머물렀다.[31] 송광연이 의천을 만난 1676년은 의천이 신성암을 4년 전에 창건하고 주석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는 의천에 대해 정신과 풍채가 의연하고 일흔 넷인데도 얼굴에 젊은이의 광채가 가득하다고 하며 고승의 인상을 전하였다.

오대산 승려의 풍모와 생활상은 정시한에 의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정시한의 산중일기는 일기체 유산기의 전형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유산과정의 거의 모든 일상을 정밀하게 그려내었다.[32] 그는 그가 유람한 산에서 거의 모든 사찰과 암자를 탐사하고 그 지세와 현황을 기록하였다. 그는 유람 중 만나게 된 거의 모든 이들, 사대부에서 승려, 노비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노인들에게는 나이를 물어서 확인했다.[33] 오대산 유람에서도 정시한은 무려 19명의 승려를 만다고 그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아래는 그러한 관찰기록이 잘 드러난 예이다.

> 함허당에 이르렀다. 밀선이 거주하는 곳인데 이 산에서 가장 깊숙하다. 밀선은 25세로 춘천사람이며 용모가 단정하고 사람됨이 편안하고 자상하다. 유점사에서 승려가 되어 수좌가 된지 이미 4,5년이 되었으며, 혼자 이 암자에 거주하고 있다. 나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 소금, 간장, 채소절임은 없고 단지 솔잎만으로 반찬을 해서 먹는다. … 의규는 90세인데도 자기 힘으로 아침과 저녁에 삼단, 칠불에 예를 올렸다. 밤에 五更點을 치고 법복을 입고 앉아 있으니 이름을 헛되게 얻은 것이 아니다.[34]

---

29) 신익성, 「遊金剛小記」, 『樂全堂集』 권7; 권혁진·허남욱, 앞의 책, 2019, p.171.
30) 송광연, 「五臺山記」, 『泛虛亭集』 권7; 권혁진·허남욱, 앞의 책, 2019, p.182.
31) 楓溪 明察, 앞의 글, 『楓溪集』下
32) 『山中日記』는 정시한의 필사본 문집에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학계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67년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자료총서』로서 민영규에 의해 영인된 때로부터다. 이후 번역본은 김성찬, 『山中日記』, 국학자료원, 1999; 신대현, 『산중일기:17세기 선비의 우리 사찰 순례기』, 혜안, 2005; 나주정씨 월헌공파종회, 『국역 우담전집』Ⅰ·Ⅱ, 2007 등이 나왔다.
33) 이경순, 「1688년 丁時翰의 八公山 유람」 『역사와 경계』69, 2008 참조
34) 정시한, 「山中日記」 1687년 10월 10일; 권혁진·허남욱, 위의 책, 2019, p.195.

이렇게 정시한은 오대산에서 마주친 승려의 나이와 용모, 관찰한 것과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낱낱이 기록했다. 당시 오대산 승려의 일상과 계행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겼다. 여기서 義珪는 1676년 송광연이 상원사에서 마주쳤던 수좌 중 한 명으로[35] 적멸보궁을 중창한 李凜의 제자이며 이 늠은 성정의 제자였다.[36] 이늠과 의규는 1660년과 1661년, 眞如院의 삼중창과 문수보살상의 조성에도 소임을 맡았던 이들로[37], 성정의 법맥을 이은 이들이 17세기 후반 山中大德으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산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수의 승려들이 등장한다. 절에서 유람객을 접대하는 승려들 그리고 남여승이었다. 남여, 肩輿, 擔輿라는 단어들은 일종의 가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히 산에서 쓰인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가마를 메는 승려를 남여승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출가 당시 양인이하 신분 출신으로[38] 승가의 하층 위계에서 승역을 담당했던 이들이었을 것이다. 17세기 이후 유산기 중에서 여섯 편에서 유람자들이 남여를 이용했음을 기록했다. 월정사 입구에서 남여승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대체로 상원사까지 남여가 운영되었다. 하지만 상원사에서 중대에 이르는 길 중간부터는 길이 너무 가파르고 위험하여 남여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창흡을 제외한 나머지 유람자들은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중대에 올랐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김창흡과 강재항은 오대산의 남여승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진부에서 월정사로 들어가다가 승려들을 마주쳤다.) 이들은 모두 영동으로 동냥을 나갔던 월정사 승려이다. 가마를 멜 사람이 없어 염려하다가 이들을 끌고 월정사로 가려고 하였다. 거짓으로 응낙하고는 몰래 도망한 자가 부지기수였다.
>
> … 다음날 남여를 준비하라 재촉해도 승려들은 일부러 더디 출발했다. 세 사람이 가마를 메고 곧바로 북쪽을 향해 계곡물을 따라 올라갔다.…점심을 먹고 북대로 향하였다. 우거진 숲속으로 접어들자 미끄러운 돌이 많아서 쉽게 미끄러졌다.
>
> … 나는 꿋꿋하게 가마에 앉은 채 내리지 않았다. 심하구나, 나의 노쇠함이여!…가마 위에 앉아도 도리어 숨쉬기가 힘드니 승려들의 어깨가 벌겋게 되었음은 알만하다. … 가마를 멘 승려들이 급히 탁발을 나가야 하기에 지체하며 기다릴 수가 없어서 빠르게 내려갔다.[39]

> 가마를 멘 승려가 동냥을 나갈 일이 급하다며 가는 곳마다 이동을 재촉한다. 이들의 뜻을 어길 수가 없어 바쁜 여정 속에서 대충 지나쳐 갈 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40]

남여의 이용은 유람자의 연령과 체력의 한계로 인해 제한되었던 이동범위를 크게 넓혀 주었다. 연로한 여행자들의 산수 유람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남여를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남여승의 부담과 고행은 커져갔으며 남여역은 승려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승역이었다. 게다가 오대산 남여승은 산에서 내려가 강릉까지 가서 탁발을 하고 돌아와야 했다. 이에 따라 일부러 늑장을 부리거나 유람자들을 재촉하는 기지로 남여역에 대응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18세기 오대산 유산기를 통해 조선 후기 남여승들의 고충과 함께 오대산에서 영동까지 탁발을 다녀야 할 정도로 사찰

35) 송광연, 위의 글; 권혁진·허남욱, 앞의 책, 2019,p.183.
36) 정시한, 위의 글, 10월 11일; 권혁진·허남욱, 위의 책, 2019, p.196.
37) 「진여원삼중창발원문」(1660); 「문수보살조성발원문」(1661),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38) 조선 후기 호적에 등재된 승려의 직역은 僧職者, 通政, 嘉善, 良僧, 賤僧으로 구분되었다. 손성필은 승가의 신분·계층적 성격에 대해 단일 신분층이 아니라 여러 신분층이 수렴된 복합적 특수계층이었다고 보았다. 손성필, 「조선시대 승려천인신분설의 재검토」, 『보조사상』40, 2013, p.70.
39) 김창흡, 「五臺山記」『三淵集』 권24; 권혁진·허남욱, 위의 책, 2019, pp.218-226.
40) 강재항, 「五臺山記」『立齋遺稿』 권12; 권혁진·허남욱, 위의 책, 2019, pp.244.

의 형편이 어려웠다는 점도 추측할 수 있다.

Ⅲ. 유산기에 나타난 상원사

『삼국유사』에 따르면, 상원사의 역사는 705년 신라 성덕왕이 진여원을 개창한 데서 시작된다. 신라 신문왕의 아들 보천과 효명이 출가를 결심하고 오대산에 들어와 둘이 각각 암자를 지었다. 이들은 5대의 五萬眞身에게 예첨을 했고 아침에 문수가 진여원(터)에 들어오자 왕자들이 동중의 물로 차를 끓여 공양했다. 왕경의 사람들이 찾아와 왕자를 모셔가려고 하자 보천은 거절하고 효명이 돌아가 孝照王이 되었는데 효조왕의 동생인 성덕왕이 건물을 짓고 소조 문수상을 봉안하면서 진여원을 개창했다. 보천은 이후 울진국에 갔다가 오대산으로 돌아와 신성굴에서 50년을 수행했다. 진여원에는 문수의 36화현 그림을 봉안했다고 한다.[41] 이러한 고려 후기의 기록은 고대의 오대산 사적과 전승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42]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승이 상원사의 유래로서 조선시대 오대산 승려들에게 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후 상원사에 대한 기록은 고려 말에 다시 나타난다. 나옹 혜근의 제자인 英露菴의 상원사 중창기록을 통해[43] 오대산 중심 사찰로서 상원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44]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9년 태조가 중대 사자암을 원찰로 삼고 낙성식에 친림하였고 태종은 상원사를 수륙재 도량으로 삼았다. 수륙재는 세종대까지 이어졌다. 이때까지 상원사는 100명의 승려가 주석하는 사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45] 1465년 세조는 상원사 중창불사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신미와 학열이 중창불사를 이끌었다. 1466년 상원사 중창 낙성식에 세조가 거둥하였는데 상원사에 세조와 관련된 이적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계기가 되었다.[46] 상원사에 대한 왕실의 지원은 예종, 성종대까지 이어져 상원사는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47] 상원사가 중창된 후의 가람 규모와 배치는 金守溫(1410-1481)의 「上院寺重創記」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 상원사 전각을 보면 불전 동서에 上室을 두었는데 학열은 지혜를 짜내어 상실 두 벽을 철거하고 칸막이로 대신하고 큰 정진이 있을 것 같으면 두 벽을 들어 올려 불전과 통하도록 하여 한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남쪽 회랑 사이에 5칸 누각을 짓고 종과 운판 도구를 달고 그 아래는 문을 만들어 출입하도록 하였다. 동쪽에 있는 상실의 동쪽에는 나한전을 세우고 서쪽에 있는 상실의 서쪽에는 청련당을 세웠으며 청련당의 서쪽에는 재궁이 있다. 廚室, 승당, 선당, 廚庫, 泡漚 등이 있어 각기 그 마땅한 용도가 있었다. 건물의 기둥(楹)만 헤아려 총 56개가 된다.[48]

---

41) 『三國遺事』 권3 「塔像」 「臺山五萬眞身」
42) 『삼국유사』의 기록은 조금 나중에 작성된 閔漬의 『五臺山事蹟』과 조금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삼국유사』나 『오대산사적』의 오대산 기록에 대한 실증적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연식, 「『삼국유사』 소재 오대산 관련 항목들의 서술 양상 비교」, 『서강인문논총』44, 2015; 박광연, 「한국 오대산신앙 관련 자료의 재검토」, 『사학연구』118, 2015 등 참조
43) 李穡, 「五臺上院寺僧堂記」, 『東文選』
44) 고영섭, 「조선 세조의 오대산 상원사 重創과 거둥 관련 유적 고찰」, 『진단학보』134, 2020, pp.186-187.
45) 『세종실록』 세종6년(1424) 4월 28일 癸酉 예조에서 계하기를, "강원도 강릉 상원사는 원래 水陸社이었으니, 革除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 恒居僧은 1백명으로 하기를 청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46) 세조가 지병을 고치려고 상원사에서 기도하던 중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나서 병이 나았고, 상원사 참배 중에 고양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적을 말한다.
47) 예종의 명에 따라 강릉도호부는 <상원사 성화5년 강릉대도호부입안>을 발급하여 산산제언을 제급하고 모든 잡역과 염분세를 감면했고 성종대에는 <상원사 성화 13년 강릉대도호부 입안문>과 <상원사 성화 17년 내수사 입안문>을 발급하여 세조로부터 예종과 성종대에 걸쳐 상원사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영섭, 위의 논문, 2020, pp.201-205.
48) 김수온, 「上院寺重創記」, 『拭疣集』 권2

상원사는 이때의 중창으로 불전, 그와 연결된 동서 양측의 상실, 누각과 회랑, 상실 동쪽의 나한전, 서쪽에는 청련당, 청련당 서쪽에는 재궁이 건립되어 동서 대칭형의 가람배치를 이뤘으며 이에 더하여 다양한 부속건물이 세워져 가람의 위용을 자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상원사는 조선 전기 왕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 속에 왕실 원찰이 되었으며 산중 암자로서는 드물게 화려하고 큰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렇게 15세기 조선 전기 왕실의 원찰로서 높은 사격을 지녔던 상원사는 조선 후기에 들어 어떤 모습으로 관찰되었을까? 17세기 이후의 유산기를 통해 들여다보자.[49]

<표 5> 조선 후기 유산기에 나타난 상원사

유람자	상원사에 대한 기록
신즙 (1626)	상원사는 중대에 있는데 모든 건물들이 금빛과 푸른빛으로 영롱하고 단청이 눈부시게 비친다. 계단은 모두 잘 다듬은 돌이고, 종과 북, 목어 등은 다른 절이 비할 게 아니다. 절 앞 1리쯤에 水閣橋가 있다. 새로 지었는데 아직 기와를 올리지 못했다. 남한산성의 부역 때문인 것 같다. 절과 스님이 두 비어 폐찰이 되었다. 문밖은 풀에 묻히고 서쪽 행랑은 반쯤 기울었다. 수각을 새로 지었으나 마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인가.
신익성 (1631)	상원사는 세조의 원찰로 크고 화려한 것이 비길 데가 없다. 소장하고 있는 그릇들이 아주 많다. 흰 병풍 하나는 안평대군이 손수 쓴 글씨여서 진귀하다.
윤선거 (1664)	상원사에 머물렀는데 마침 재회가 있어 사대의 승려들이 모두 모였다.…상원사를 설립한 것은 세조때 학열이 뜻을 받들어 세웠고 김괴외가 기문을 지었다. 백성들의 재산을 모두 써서 화려함을 다하였다. 백헌 이경석도 중수기를 지었다. 여기에 사고를 세웠다면 힘들이지 않고 갖추었을 것이다.
송광연 (1676)	상원사는 중대의 정맥에 위치하였으며 규모가 대단히 크고 화려하다. … 종각에는 괴애 김수온과 백헌 이경석 두 재상의 序記가 있다. 수좌승으로는 義珪, 三印, 性虛 셋이 있는데 삼인은 마침 하산했다.
정시한 (1687)	상원사 스님 한 사람이 지키고 있음. 법명은 신영으로 경진생이다. 밀선스님과 함께 상원사 주위를 둘러보고 절의 기물과 종을 보았다. 종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이 우는 소리가 나니 일찍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것이다. 여러 요사 건물들은 온갖 인력과 기교를 다하여 만들었다. 법당의 綵帳은 예로부터 전해오던 것으로서 이른바 氷蚕火浣布라고 한다.
조덕린 (1708)	백여 칸 지은 것이 매우 정교하고 불우, 소상, 탁자, 그릇 종류들이 모두 기이하고 화려하다. 사이에 다른 나라의 물건이 있다. 계단은 모두 흰색으로 갈고 다듬은 것이 섬세하고 부드럽다. 옆으로 배열하여 쌓았는데 열 개 계단을 올라가서 완성된다. 모두 돌난간을 썼는데 좌우에 끼고 있다. 엄숙한 것이 궁궐의 모양이다. 다른 건물 꾸밈의 정밀함과 모양을 본뜨고 조각한 공교로움이 매우 기교가 있어 기괴함에 현혹되니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다. 아! 사람의 힘을 쓴 것이 많고 공사비가 많이 들여 크고 화려한 볼거리를 창건했으나 큰 산 궁벽한 계곡 가운데 치우쳐 있어 인간세상과 떨어진 것이 거의 백리다. …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니 절을 황폐하게 하고 담장과 집은 관리되지 않아 황량하고 추우며 적막한 경계에서 무너지고 비가 새며 부서지게 되었다. 불가에서 건립한 공덕은 논할 것이 없으니 이미 사용한 공력이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스님이 말하길 사원전이 영동에 있어 해마다 수입을 거두어 수선의 비용을 충당한다고 한다.
김창흡 (1718)	상원사에 이르러 불전과 행랑을 두루 둘러보니 구조물이 아주 많고 수식도 아주 성대하다. 계단은 모두 작은 돌을 정치하게 갈아서 만들어, 치밀하기가 마치 옥구슬을 쌓아둔 듯하다. 경주에서부터 공수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범종은 품새가 교묘하고 소리가 굉장하다. 대개 세조가 와서 순력할 때에 백관이 그림자 쫓듯 따라왔을 것이다. 지금의 승료는 모두 당시의 절간 건물이라고 한다. 왼쪽에는 진여각이 있는데 전각에는 문수보살의 삼십육변태를 그려 두었다. 그걸 보면서 한바탕 웃을 만 하였다.
강재항 (1727)	상원사는 전각과 낭료가 붙어 있고 축조한 것이 정교하다. 층계는 모두 잘 다듬어진 정석이며 이끼가 전혀 끼어있지 않다. 승려가 말하길 “光廟때에 동경(경주)의 옥산석을 캐어 바다로 운반하여 온 것입니다. 종은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소리도 웅장한데, 또한 동경에서 운반해 온 것입니다. 광묘가 동쪽으로 유람하실 때 이곳에 행차하였는데 문무백관들이 수행하였습니다. 지금의 승방은 모두 당시의 건물입니다.” 라고 한다. 상원사에서 왼편으로 돌아 진여각에 들러 이른바 삼십육변상을 보았다.
채지홍 (1740)	큰 건물과 작은 건물, 계단과 담은 토목 공사의 부역으로 매우 아름다워 모양이 궁중과 비슷하다.
정기안 (1742)	상원사에 이르니 절 동쪽에 응진각이 있고 응진각 동쪽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잎이 측백같이 부드럽다. 스님이 말하길 이것은 나옹이 손수 심은 것인데 나옹이 떠날 때 말하길, 이 나무가 죽으면 나도 마땅히 죽을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나도 다시 세상에 나올 것이라 했는데 수 십 년 전에 홀연히 말라 죽었다가 지금 다시 잎이 났다고 한다.

49) <표 5>의 유산기 번역문은 권혁진·허남욱, 앞의 책(2019)과 윤찬호(역), 『혼원집』(2020)에서 가져온 것이다.

세환 (1883)	길을 떠나 30리를 가서 상원암에 이르렀는데, 이 암자는 월정사의 위쪽으로 30리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대웅전과 응진전은 모두 편액이 金字로 되어 있었는데 칠을 새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다. 존상은 우뚝 서 있었고 단청은 눈부시게 화려했다. 양 옆으로 나란히 세워진 요사채와 누각들은 훤히 빛나는 것이 마치 새로 지은 것 같았다. 나한존상은 맑은 마음과 도인의 골격을 갖추었고, 기름진 피부는 빙설(氷雪)과 같아서 그에게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질 듯 보였는데, 바로 나옹 화상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존상이었다.

조선 후기 유람자들이 상원사에 대해 남긴 기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원사의 조선 전기 중창 흔적이 조선말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17세기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유람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원사의 건축과 불상, 기물의 아름다움과 성대함을 기록했다. 거의 모든 유람자들이 상원사 건축의 화려하고 정교한 축조 기술, 특이한 건축 구조, 범종을 비롯한 법구들과 기물의 법식에 놀라고 감탄했다. '다른 절과 비길 데가 없다'거나 '엄숙한 것이 궁궐과 같다'라는 표현에서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던 건축 구조와 높은 수준의 건축술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축조기술과 건축의 화려함에 대한 인상은 상원사의 돌계단에서 뚜렷했다. 1708년 조덕린이 '계단은 모두 흰색으로 갈고 다듬은 것이 섬세하고 부드럽다. 옆으로 배열하여 쌓았는데 열 개 계단을 올라가서 완성된다. 모두 돌난간을 썼는데 좌우에 끼고 있다. 엄숙한 것이 궁궐의 모양이다. 다른 건물 꾸밈의 정밀함과 모양을 본뜨고 조각한 공교로움이 매우 기교가 있어 기괴함에 현혹되니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다.'라고 했던 것이나 '계단은 모두 작은 돌을 정치하게 갈아서 만들어, 치밀하기가 마치 옥구슬을 쌓아둔 듯하다. 경주에서부터 공수해 왔다고 한다.'라는 1718년 김창흡의 언급에서도 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강재항 역시 상원사 계단을 만든 돌은 옥산석으로 경주에서 바다를 통해 운반해 온 것이라는 승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유람자들은 범종에 대해서도 각별한 인상을 기록했다. 상원사 종은 원래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주조된 것으로 상원사로 봉안되기 전에는 안동부 남문루에 걸려 있었는데 학열이 중창 당시 숭덕 등과 함께 안동에서 종을 운반한 것이었다.[50] 정시한은 '종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이 우는 소리가 나니 일찍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것이다.'라고 했으며 김창흡 역시 '범종은 품새가 교묘하고 소리가 굉장하다.'고 했다.

이러한 상원사에 대한 묘사들은 조선 전기 상원사 중창이 당시 최고의 인력과 기술, 막대한 공력이 투여된 불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취가 조선말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건축물이나 기물들이 조성되었던 이유로 유람자들은 상원사가 세조의 원찰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유람자들은 가람의 성대함에 감탄하는 한편, 윤선거의 표현대로 '백성의 재산을 모두 써서 화려함을 다했다.'라는 식의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상원사에 대한 유산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상원사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조선 세조대의 중창불사로 가람의 기초가 닦였지만 조선 후기 상원사는 절이 비고 승려가 사라지는 위기를 겪었고 가람의 배치 등에 변화를 겪었다. 1626년 상원사를 찾았던 신즙은 상원사에서 1리 앞에 수각교를 새로 지었는데 지붕을 올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문밖은 풀에 묻히고 서쪽 행랑은 반쯤 무너져 있던 광경을 목격했다. 그리고 절은 승려 없이 비어있었는데 그 이유를 남한산성 부역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남한산성은 후금의 군사적 위협이 커져 가던 1624년 개축이 시작되었고 2년만인 1626년 완공되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승군이 동원되었다. 당시 벽암 각성이 八道都摠攝에 임명되어 승군을 지휘하여 축성했는데 축성 이외에도 산성의 방비를 위해 남한산성 내 9개의 사찰을 조성, 승군을 주둔하게 했다.[51] 이렇게 17세기 전반부터 국가적 사업에 승군 동원이 제도화 되어 남한산성 축조에 삼남의 승려들이 동원되고 이후 강원도의 승려들은 경기도, 황해도 승려들과 함께 남한산성

50) 『예종실록』 예종1년(1469) 윤2월 25일 庚辰.
51) 김용태, 「조선 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한국사상과 문화』78, 2015, pp.191-201.

의 방비에 교대로 차출되었다.[52] 상원사가 비어 있는 것을 목격한 신즙의 추정이 맞다면 남한산성 축조 직후 방비를 위해 오대산 승려들이 차출되었고 그러한 영향으로 사찰이 일부 무너지고 비게 되어도 손을 못 쓰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상원사는 이후 1644년 覺海에 의해 중수 되었다. 李景奭의 「上院寺重修記」에는 각해가 상원사 법당 등을 중수하고 불상을 개금한 사실이 기록되었다.

> 세월이 많이 흘렀다. 기둥과 서까래가 기울어져 무너지고 황금색과 푸른색의 아름다운 색채가 뭉개져 나는 새가 점차 변하여 고승이 탄식하더니 覺海上人이라는 사람이 있어 분개하며 한탄하여 떨치고 일어나 마침내 옛 사찰을 일으켜 세움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서 지팡이를 휘두르고 배를 타며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 돌아다닌 7개월 만에 단월이 넘침을 고하고 풍근이 비로소 운행하고 승려가 구름처럼 모여서 목수의 일이 날로 이루어져 두 번 봄을 지내서 끝내니 갑신년이다.[53]

각해는 이처럼 7개월의 권선과 2년여의 공사를 거쳐 상원사를 중수했다. 법당, 선당, 승당, 東西上室과 별관, 요사들(蓮社, 賓日, 激月), 종각, 수각 등 14개의 전각을 중수, 단청하고 7구의 불상을 개금하였다. 조선 초의 가람 규모를 보존하면서 중수한 것으로 짐작된다. 2년 뒤 1646년에는 승려 班玄이 나한전과 海會堂을 보수하여 낙성하였다고 전해진다. 세조대의 중창이후 180년 만인 17세기 중반에 중수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사에 머무는 승려 수는 급격히 줄었던 것 같다. 1676년 송광연은 상원사에 세 명의 수좌승이 있다고 하였고, 1687년 정시한의 기록에는 한 명이 상원사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18세기 초 조덕린은 절이 황폐하고 비어있음을 한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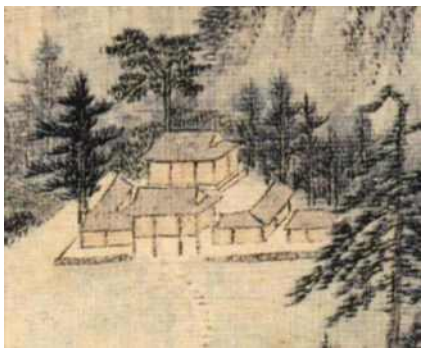
한편, 18세기 이후 상원사의 가람배치와 전각 규모에도 큰 변화가 생겼던 것 같다. 1742년 정기안과 1883년 세환의 유산기에는 상원사의 건물로 대웅전과 응진전만이 언급되었다. 응진전은 대웅전의 동쪽에 위치한 건물로 세조대 중창과 1646년 보수를 거친 나한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세기 전반에 이미 나한전에서 응진전으로 편액이 바뀌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이후 법당과 연결된 동서 상실이나 원래 서쪽에 위치했던 청련당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유람자가 모든 건물을 서술하지 않고 인상적 건물만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건물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반증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1788년 김홍도의 「상원」에도 상원사의 전각들이 간략히 묘사되었다.

---

52) 김용태, 위의 논문, 2015, p.189.
53) 이경석, 「上院寺重修記」, 『栢軒集』 권31

그림1. 김홍도, 『金剛四君帖』(개인소장) 중 「上院」

그림2. 그림1의 부분 확대



그림에는 중앙 법당과 출입구를 겸한 누각, 법당을 ㄷ자로 둘러싼 회랑 건물과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작은 전각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것은 실제 존재했던 당우들을 생략해서 특징만을 잡아 낸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조선 초 대대적 중건과 17세기 전반 14개 전각으로 중수되었던 가람의 규모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사이에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림3. 일제강점기 상원사 전경 사진
(『유리원판사진목록집』, 국립중앙박물관)

이 점은 일제강점기의 사진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이 사진과 김홍도의 그림에 나타난 상원사의 대체적 건축 규모와 구조는 거의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김홍도 그림에서 누각이 일자인 반면 사진에서는 丁자형을 보이고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누각의 개축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상원사는 조선 후기에 거주 승려 수가 급감하고 사찰의 규모가 축소된 것은 오대산내 사찰의 인원 배치와 위상의 변화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606년 오대산사고가 설치되면서 영감사가 관리 사찰로서 역할을 하고 사고 관리의 실질적 임무를 각 사찰에서 차출된 승도들이 맡게

되었다. 이 守直僧徒의 수는 처음에는 강릉과 양양에서 각 20명씩 차출되어 40명이었다. 강릉과 멀리 떨어진 양양의 승도가 차정된 것은 강릉의 승려만으로는 정원을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1686년 수직승도 규정이 수정되면서 수직승도의 정원이 강릉과 양양에서 각 30명씩, 총 60명으로 증가하게 된다.[54] 이에 따라 오대산의 승려들이 영감사에 집중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초래되었을 것이다, 이후 18세기에 다시 40명으로 감원되었지만 수직승도로 차출되는 인원을 채우는 것은 17세기 후반 오대산 사찰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원사의 승려 수가 줄고 절이 비는 사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대산 초입의 월정사가 16세기 말 사명당 유정에 의해 중건되고 1606년 이후 월정사 주지가 사고의 수호를 담당하는 수호총섭을 맡게 되었다. 1744년 화재이후 왕실의 지원을 받아 중건되면서 다수의 전각이 들어섰는데 이때의 모습은 1788년 김홍도의『금강사군첩』중「월정사」그림으로 확인된다.[55]

그림4. 김홍도,『金剛四君帖』중「月精寺」

그림 속 다수의 전각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월정사는 사고의 수호와 관리를 책임지는 사찰로서 오대산을 대표하는 위상을 갖게 되고 대가람으로 중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오대산 불교의 중심이 월정사로 옮겨가는 구조적 변화 속에 월정사에는 강원이 운영되고 상원사는 선방으로서 성격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56] 상원사가 오대산의 전통과 신앙의 중심으로서 상징성을 갖는다면 월정사는 오대산의 행정과 강학 중심 사찰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산기 속에서 발견되는 상원사의 위상과 전승에 관한 것이다. 1664년 오대산을 유람한 윤선거는 상원사에 머물렀는데 마침 齋會가 있어 사대의 스님들이 모두 모였다고 하였다. 어떤 재회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사대의 승려들이 모두 모인 재회를 상원사에서 개최했다는 것은 상원사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676년 송광연은 상원사에 義珪, 三印, 性虛 3명의 수좌승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상원사에서 선방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15세기 중창 시에도 선당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부속 건물에 속해 있었다. 언제부터 상원사가 선방 중심의 사찰이 되었는가를 추정할 때 송광연의 기록은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1718년 오대산을 유람한 김창흡은 상원사 왼쪽에 진여각이 있고 그 안에 문수보살이 36변태를 그

54) 강문식,「조선 후기 오대산사고의 守直僧徒 운영」,『동국사학』57, 2014, pp.49-52.
55) 한상길,「오대산 월정사의 역사와 전통」,『한국선학』30, 2011, p.396 참조
56) 월정사의 강원과 상원사의 선원 운영은 20세기 초 오대산을 방문한 다카하시 토오루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高橋亨,『李朝佛教』, 寶文館, 1929, pp.9-10.

려놓았다고 하였다. 9년 뒤인 1727년 강재항도 김창흡과 마찬가지로 상원사 왼편으로 돌아 진여각에 들러 이른바 36변상을 확인하였다. 진여원은 오대산의 전승 속에 최초의 도량으로 상원사의 시원으로 알려졌다. 신라의 왕자, 효명과 보천이 오대산에 들어와 수행할 때 진여원터에서 문수보살이 새벽에 출현하여 36가지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異蹟을 행했는데 이것이 진여원을 창건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후 보천이 36변상을 봉안했다고 전해진다. Ⅱ장에서 살펴봤듯이 진여원은 조선시대 1660년 환적 의천이 새로 지었고 1661년 그 안에 문수상과 36화현의 형상을 봉안했다. 환적 의천은 오대산 사적에서 진여원의 위상과 중요성을 깨닫고 상원사 왼편에 진여원을 복원하고, 사적 그대로 문수보살의 36변태를 그림으로 봉안했던 것이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의천을 중심으로 오대산의 고대 전승과 신앙을 상원사 주변에 복원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김창흡과 강재항은 환적 의천이 복원한 진여원을 둘러보고 그곳에 그려진 문수 36변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한편, 1732년 권섭은 상원사 응진전 밖 나옹이 심은 계수나무 두 그루를 보았다고 하였다. 1742년 정기안의 유산기에도 이 나옹의 나무 이야기가 나온다. 나옹이 손수 심은 나무이고 '이 나무가 죽으면 나(나옹)도 마땅히 죽을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나도 다시 세상에 나올 것이라 했는데 수 십 년 전에 홀연히 말라 죽었다가 지금 다시 잎이 났다'는 승려의 말을 전하였다. 또한 1883년 세환은 응진전의 나한존상이 '맑은 마음과 도인의 골격을 갖추었고, 기름진 피부는 氷雪과 같아서 그에게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질 듯 보였는데, 바로 나옹 화상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다고 전하였다.

나옹과 나옹 문도는 여말선초 오대산에 주석하였는데 나옹은 상두암과 영감암 등에 머물렀고 1376년 나옹의 제자 영로암이 상원사를, 나암유공과 목암영공이 서대 수정암(염불암)을, 각운설악이 중대 사자암을, 지선이 동대 관음암을, 비구니 혜명 등이 영감암을 중창했다. 이들로 인해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걸쳐 오대산 신앙이 중흥되었다고 본다.[57] 18세기와 19세기에 상원사 응진전을 중심으로 나옹의 전설과 영향이 기록된 것으로 여말선초 오대산 불교를 중흥시킨 나옹과 그 문도의 행적이 나옹의 전설로 전해지고 신앙화 되어 조선말까지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진여원의 중창과 나옹의 전승은 조선 후기 오대산 불교의 구조적 재편 속에 상원사가 오대산 불교의 신앙과 역사를 보존한 성지로서 상징적 위상과 명맥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李朝佛教』의 저자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는 1912년 오대산사고를 조사하러 오대산에 갔다가 조선불교에 대한 종래의 관념에 일대 변화를 일으켜 조선시대 불교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하시 토오루는 경성 주변의 승려들만을 접하다가 오대산 월정사 승려들의 엄정한 강학과 상원사 승려들의 선수행을 목격하고 큰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가 목격한 상원사 승려들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새벽 3시에서 저녁 9시까지 俗氣를 끊은 채 경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선수행에 임했다.[58] 조선불교의 전통이 오대산 상원사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목격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원사의 역사에서 간과되어 온 조선 후기 상원사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오대산 유산기록을 살펴보았다. 오대산 유산기록은 조선 후기에 많이 출현했는데 오대산 유람의 증가는 금강산 유람의 유행과 유람 권역의 확대, 오대산사고의 설립과 운영, 김창흡과 같은 당대를 대표하는

57) 황인규, 「여말선초 나옹문도의 오대산 중흥불사」, 『불교연구』36, 2012, p.263.
58) 高橋亨, 앞의 책, 1929, pp.9-10.

문인들의 유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산기에는 당시 오대산에 있었던 많은 사찰과 승려들이 기록되어 조선 후기 오대산 불교가 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17세기 중후반 환적의천에 의해 몇몇 중대 암자들이 중창되었는데 유산기는 이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을 전했다.

오대산 유람에서 상원사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다. 오대산 신앙의 상징적 장소이자 조선 전기 세조의 행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유산기에는 세조대 중창된 상원사 가람의 법식과 정교한 건축기술에 대한 감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상원사의 역사적 위상을 회고하면서 17세기 이후 상원사의 절이 비고 승려가 몇 명 남지 않은 상황을 전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이후 상원사는 전각 수가 줄고 가람배치도 변화를 겪었음이 드러난다. 오대산사고를 관리하기 위해 영감사에 많은 수직승도가 거주하고 월정사가 총섭이 머무는 오대산 중심사찰로 큰 가람을 이루면서 오대산내 사찰들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람자들은 상원사 왼쪽에 중창된 진여원과 문수상, 36변상도를 목격하고 기록을 남겼다. 또한 나옹의 전설을 담고 있는 계수나무, 나옹의 얼굴을 닮은 나한존상 등 상원사에 나옹의 전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조선 후기 상원사는 오대산 불교의 변화 속에서 오대산 신앙 중심으로서 위상과 역사적 전승을 보존하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오대산 유산기록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상원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 오대산 유산기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오대산 불교의 역사가 풍부하고 다채롭게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三國遺事』,『五臺山事蹟』,『朝鮮王朝實錄』,『東文選』,『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
『拭疣集』,『栢軒集』,『樂全堂集』,『三淵集』,『楓溪集』,『泛虛亭集』,『立齋遺稿』,『楓溪集』
월정사 성보박물관,『월정사성보박물관도록』, 2002
월정사 성보박물관,『華嚴, 연꽃가지를 들다』, 2014

강문식,「조선후기 五臺山史庫의 운영」,『장서각』27, 2012
_____,「조선 후기 오대산사고의 守直僧徒 운영」,『동국사학』57, 2014
高橋亨,『李朝佛教』, 寶文館, 1929
고영섭,「조선 세조의 오대산 상원사 重創과 거둥 관련 유적 고찰」,『진단학보』134, 2020
권혁진· 허남욱,『오대산의 인문학』, 도서출판 산책, 2019
김무봉,「상원사 중창 권선문의 조성 경위에 대한 연구」,『불교학연구』30, 2011
김용태,「조선 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한국사상과 문화』78, 2015
박광연,「한국 오대산신앙 관련 자료의 재검토」,『사학연구』118, 2015
손성필,「조선시대 승려천인신분설의 재검토」,『보조사상』40, 2013
신대현(역),『산중일기: 17세기 선비의 우리 사찰 순례기』, 혜안, 2005
염중섭,「新羅 五臺山의 文殊信仰과 五萬眞身신앙 검토」,『한국불교학』92, 2019
_____,「한국오대산 五萬眞身信仰의 특징과 北臺信仰의 변화」,『불교학연구』62, 2020
유근자,『조선시대 왕실발원 불상의 연구』, 불광출판사, 2022
_____,「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제석천상의 연구」,『선문화연구』30, 2021
_____,「오대산 상원사 제석천상의 도상과 봉안처」,『불교문예연구』20, 2022
윤찬호(역),『혼원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2020
이경순,「1688년 丁時翰의 八公山 유람」,『역사와 경계』69, 2008
이경순,「조선 후기 승려의 금강산 유람록 연구」,『불교학연구』73, 2022
이원석,「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역사」,『한국불교학』67, 2013
이종호,「17~18세기 기유문예의 두 양상-농연그룹의 문예활동을 중심으로-」『漢文學論集』30, 2010
최연식,「『삼국유사』 소재 오대산 관련 항목들의 서술 양상 비교」,『서강인문논총』44, 2015
탁효정,「조선시대 오대산의 왕실불교와 원당의 운영」,『불교문예연구』20, 2022
한상길,「오대산 월정사의 역사와 전통」,『한국선학』30, 2011
황인규,「조선중기 월정사와 상원사·적멸보궁」,『역사와 교육』14, 2012
_____,「여말선초 나옹문도의 오대산 중흥불사」,『불교연구』36, 2012

【Abstract】

Sangwon Temple of Odae Mountain viewed through the records of the Travel in the late Joseon period

Lee, Kyungsoon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cords of travel on Odae Mountain to examine the appearance of Sangwon Temple in the late Joseon period. Several travel records of the Odae Mountain in the late Joseon period remain. The popularity of Mt. Geumgang travel, the expansion of the travel area,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oyal archives, and the writers representing the time, such as Kim Chang-heup, influenced it.

In the travel records of the late Joseon period, Sangwon Temple, along with Woljeong Temple, was a must-see place for the Odae Mountain. Sangwon Temple was a journey destination representing Odae Mountain and an important place. In the records of travel, vivid images of temples and monks in Odae Mountain were recorded, indicating that Buddhism in Odae Mountain continued lively in the late Joseon period.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several major temples were actually newly built in the mid-to-late 17th century.

Many travelers were astonished and elaborate architectural techniques of Sangwon Temple, which was rebuilt during the king Sejo period. This is a testimony that the importance of Sangwon Temple was a Buddhist temple represent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e travel record also reported that Sangwon Temple has unoccupied and few monks remain since the 17th century.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temple hall has decreased and the arrangement has changed since the 18th century. Meanwhile, the travel records contain sightings of Jinyeowon on the left side of Sangwon Temple and the painting of Manjusri's 36 different appearanc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nsmission of Naong monk of the late of Koryeo continued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on the Sangwon Temple. In the late Joseon period, Sangwon Temple tried to preserve its status and historical transmission as the center of the Odaesan belief in the change of Odaesan Buddhism.

[Keyword] Sangwon Temple, travel records, Odae Mountain, Odae Mountain Buddhism, the late Joseon period